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의 영향요인: 친사회성,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sociality and Defender Coping Efficacy in Cyber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Victims and Class Coping Efficacy

1차원고접수: 2026.01.07. 수정원고접수: 2026.03.02. 최종게재결정: 2026.03.20.

이정임¹ · 박종효²

¹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및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²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Lee, Jungim¹

Park, Jonghyo²

¹Mirim Meister High School & 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친사회성과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효과가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푸른나무재단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3~6학년 2,055명을 분석하였다. 친사회성,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및 학급대처효능감을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친사회성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는 두 변인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는 학급대처효능감에 의해 조절되었고, 학급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영향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셋째,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거쳐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방어 행동 증진을 위해 개인 요인과 학급 차원의 집단적 대처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학급대처효능감, 친사회성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victims and the moderating role of class cop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ociality and personal defender coping efficacy in cyberbully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are drawn from the fourth wave of a nationwide survey conduct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and the sample consisted of 2,055 students in Grades 3 to 6. Prosociality, positive attitudes toward victims, personal defender coping efficacy, and class coping efficacy were assess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Mediation,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a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prosocial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sonal defender coping efficacy, and this relationship was partially mediated by positive attitudes toward victims. In addition, class coping efficac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ositive attitudes toward victims and personal defender coping efficacy, such that the effect of positive attitudes was weaker in classrooms with higher levels of class coping efficacy. Furthermore, the indirect effect of prosociality on personal defender coping efficacy through positive attitudes toward victims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class coping efficacy, confirming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moting cyberbullying defense behaviors requires not only strengthening individual prosocial characteristics and victim-supportive attitudes but also enhancing collective coping efficacy at the classroom level.

Keywords cyberbullying, personal defender coping efficacy, positive attitudes toward victims, class coping efficacy, prosociality

Corresponding to 박종효(Park, Jonghyo)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Dept.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E-mail. jonghyop@konkuk.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학습하며 여가를 즐기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는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성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또래 관계 형성과 유지 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오프라인 관계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또래 간 상호작용의 빈도와 범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갈등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고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김학주, 2021; 노언경, 2024; 노희주, 조윤오, 2025; 정여주 등, 2025; Polizzi & Harrison,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생의 36.8%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1.4%는 가해 경험, 11.8%는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25). 이는 초등학교생이 사이버폭력 위험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방과 개입은 중·고등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발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강소라, 조해련, 김신정, 2020).

사이버폭력은 반복성, 확산성,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 괴롭힘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Hinduja & Patchin, 2015; Smith et al., 2008; Wang, Nansel, & Iannotti, 2011).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여주, 김한별, 전아영, 2016; Hinduja & Patchin, 2019). 온라인 공간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삭제가 어려워 피해의 누적성과 장기성을 심화시킨다(박철규, 김하균, 2021). 이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 공동체의 정서적 안전감도 저하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생 시기는

또래 규범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도덕적 판단과 공감 능력이 형성되는 발달적 전환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자, 방관자, 또는 방어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Pardo-Gonzalez & Souza, 2022). 따라서 사이버폭력 예방은 단순히 가해 행동의 억제를 넘어, 또래 집단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방어행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은 괴롭힘이 개인 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또래 집단 내 상호작용과 규범 속에서 강화되는 집단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주변인(bystander)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송지연, 2022; Oh & Hazler, 2009). 사이버폭력 상황에서도 주변인의 반응은 방관, 동조, 또는 방어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경선정, 신희영, 2023; Doumas & Midgett, 2021). 그중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은 괴롭힘의 지속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보호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미정, 2025; Chen, Chen, Li, & Fan, 2024; Hawkins, Pepler, & Craig, 2001; Sobol, Przepiorka, & Błachnio, 2025). 그러나 실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태도나 규범 인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신념, 즉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친사회성과 방어행동 간의 직접적 관련성 검증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개인적 특성이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경로를 통합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학급 차원의 집단적 신념이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 역시 충분하지 않다. 즉, 개인 수준 요인과 맥락 수준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실

행할 수 있다는 인지적 확신을 핵심으로 한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선택과 노력의 지속성,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수준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 기제로 이해된다(Poyhonen, Juvonen, & Salmivalli, 2010). 자기효능감은 단순한 태도나 가치 판단과 구별되며, 실제 행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위협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상황에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실제로 개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방어행동과 관련되는 핵심 심리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Bussey, Luo, Fitzpatrick, & Allison, 2020; Derr & Morrow, 2020; Zhao, Chu, & Rong, 202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방어행동이나 방어 의도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방어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돕거나 지지하는 실제 수행 행위를 의미하며, 방어 의도는 그러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동기적 의향을 가리킨다. 즉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지적 기반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전반적 수행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정 맥락에 한정된 효능감이다. 이는 상황 맥락과 과업 특수성이 강조되는 자기효능감 이론의 기본 전제와도 부합된다(Bandura, 1997). 따라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일반적 자신감이나 성향적 특성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서의 개입 수행 신념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독립성을 가진다. 정리하면, 방어행동은 수행 수준의 결과 변인이고, 방어 의도는 동기적 수준의 선행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방어행동 자체가 아니라 방어행동과 관련되는 수행 신념의 형성 경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되며,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결정론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Bandura, 1989). 따라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을 동시에 고려

하는 접근은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폭력 상황에서의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역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급이라는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박서연, 서미정, 2024).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친사회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며, 이러한 태도는 다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경로로 이해될 수 있다.

친사회성은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 경향을 의미하며(Eisenberg & Miller, 1987), 친사회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오승화, 2018; 이은영, 황혜원, 2019). 그러나 친사회적 성향이 항상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는 피해자를 지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하지 않는 태도적 판단을 포함한다(DeSmet et al., 2016; Koehler & Weber, 2018; Thornberg, Wanstrom, Hong, & Espelage, 2017). 태도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Law, Shapka, Hymel, Olson, & Waterhouse, 2012).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는 개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개입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효능감과 관련되는 심리적 토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임승철, 박주희, 2020; Batson, 2012; Eisenberg, Fabes, & Spinrad, 2007; Gini, Pozzoli, Borghi, & Franzoni, 2008; Macaulay, Betts, Stiller, & Kellezi, 2022). 따라서 친사회성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통해 구체적 행동 신념 수준으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Hu, Zhang, Shi, & Fan, 2023; Panumaporn, Hongsanguansri, Atsariyasing, & Kiatrungrit, 2020), 이러한 과정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연결되는 심리적 경로로 이해될 수 있다.

학급대처효능감은 학급 구성원들이 사이버폭력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집단적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2001). 이는 단순한 학급 분위

기 인식을 넘어, 또래 간 상호 신뢰, 공동 책임감, 집단 규범이 결합된 구조적 신념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의 학급대처효능감은 실제 학급 단위에서 집계된 집단효능감이rag기보다, 학생 개인이 지각한 학급의 집단적 대처 역량(perceived class coping efficacy)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는 개인 응답을 기반으로 수집되었으며, 학급 단위 집계나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학급대처효능감은 개인이 지각한 학급구성원의 대처효능감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선택과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으로 이해된다. 학급대처효능감이 높은 환경에서 개입 시 또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Hinduja & Patchin, 2008). 반대로 집단의 대응 신념이 낮은 환경에서는 개입 시 고립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효능감 수준과의 관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차이는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조건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경로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학급 수준의 맥락 요인인 학급대처효능감은 개인의 태도가 효능감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관련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적 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

이 있다(김은주, 2016; 송경의, 손연경, 이승연, 2018; 오인수, 임영은, 김서정, 2019).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 과정을 개인 요인(친사회성), 태도 요인(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학급 맥락 요인(학급 대처효능감)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 매개 경로가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다층적 개입 전략의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2, 3 참조).

연구모형 I은 친사회성과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모형이다. 연구모형 II는 연구모형 I의 매개 경로를 확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연구모형 III은 연구모형 I, II를 통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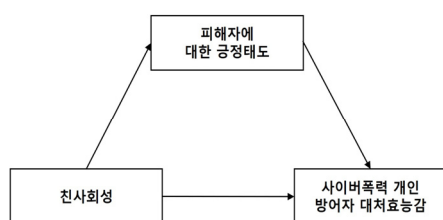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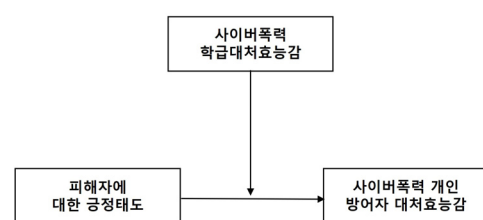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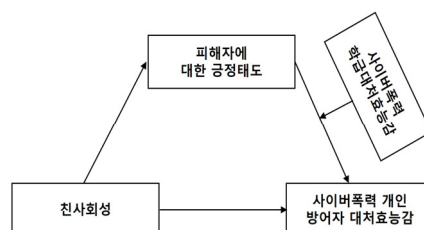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III

모형으로,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 간접효과가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된 매개모형이다.

연구문제 1. ‘친사회성’과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의 관계에서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 과정에서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푸른나무재단 푸른코끼리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수집된 2023년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2,055명(남: 1,031, 여: 1,024)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되었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분석 대상 분포 (N = 2,055)

성별	초 3	초 4	초 5	초 6	학생수(명)	백분율(%)
남	111	305	266	349	1,031	50.2
여	111	248	234	431	1,024	49.8
전체	222	553	500	780	2,055	
백분율(%)	10.8	26.9	24.3	38.0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는 박종효 등(2021)의 사이버폭력 검사도구 타당화 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자기 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1) 친사회성

친사회성은 문용린 등(2010)이 제시한 친사회성과 인성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척도로,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의 6개의 하위 역량(약칭 ‘정약용책배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역량은 인식, 태도, 행동을 반영하는 총 18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예시 문항은 “나는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킨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용서하려고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푸른나무재단의 연구(2023)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90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적절한 수용 가능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는 사이버폭력 영향 요인 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 태도척도의 하위 요인인 ‘피해자에 대한 태도’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는 태도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시 문항은 “나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푸른나무재단(2023)에서 Cronbach’s α 는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6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기반의 모형 기반 신뢰도(McDonald’s ω)를 산출

한 결과, $\omega = .64$ 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 적재량은 .51~.71 범위로 나타나 단일요인 구조의 수렴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동정하고 옹호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3)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처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 중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개입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평가하는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시 문항은 “나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에게 위로나 힘이 되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말씀드려서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를 도울 수 있다” 등이다. 푸른나무재단 연구(2023)에서 Cronbach's α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개입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은 사이버폭력 대처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집단효능감’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학급 분위기와 또래 상호작용의 맥락을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학급 구성원이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시 문항은 “우리 반 아이들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아이를 위로해 줄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사이버폭력을 하는 아이에게 그만두라고 말할 것이다” 등이다. 푸른나무재단(2023)에서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학급 구성원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집단적 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푸른나무재단이 2023년 실시한 4차년도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변인을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에서 결측치가 없는 자료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고, 추리통계 분석은 R(ver. 4.5.1)의 lavaan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성,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에 대해 기술통계와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 미만, 10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Kline, 2015). 둘째,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여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적용하여 5,000회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고,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방어행동 및 방어자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ussey et al., 2020; Thornberg et al., 2017), 학년 역시 또래관계 특성과 방어행동 경향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Pabian, Vandebosch, Poels, Van Cleemput, & Bastiaensens, 2016; Song & Oh,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왜도(skewness)의 절댓값은 .60 ~ 1.13, 첨도(kurtosis)의 절댓값은 .58 ~ 1.11로 나타나, Kline(2015)이 제시한 기준(왜도 ± 3 미만, 첨도 ± 10 미만)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은 친사회성($r = .52, p < .01$),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r = .50, p < .01$), 학급대처효능감($r = .69,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친사회성과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r = .37, p < .01$), 친사회성과 학급대처효능감($r = .45, p < .01$),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학급대처효능감($r = .48, p < .01$) 역시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표 2.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 ($N = 2,055$)

	1	2	3	4
1.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			
2. 친사회성	.52**	-		
3.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50**	.37**	-	
4. 학급대처효능감	.69**	.45**	.48**	-
평균	4.32	4.05	4.17	4.27
표준 편차	.75	.58	.67	.80
왜도	-1.06	-.60	-.68	-1.13
첨도	.90	1.11	.58	1.08

** $p < .01$.

상관계수의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10은 작은 효과, .30은 중간 효과, .50 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하였다.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학급대처효능감 간 상관($r = .69$)은 Cohen의 기준에 따르면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며, 두 변인 간 관련성이 실질적으로도 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 상관($r = .52$) 역시 큰 효과에 해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상관($r = .50$) 또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2.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매개모형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4에서 제시하였다. 친사회성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나타났으며($B = .39, SE = .02, t = 22.16, p < .001$),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는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확인되었다($B = .07, SE = .01, t = 6.61, p < .001$). 매개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친사회성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유의한 직접 관련을 유지하였다($B = .29, SE = .02, t = 17.03, p < .001$).

부트스트래핑(5,000회)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B = .07, 95\% \text{ CI } [.05, .07]$)는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효과는 $B = .39(95\% \text{ CI } [.35, .42])$ 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를 포함한 이후 직접효과($B = .29, 95\% \text{ CI } [.26, .32]$) 역시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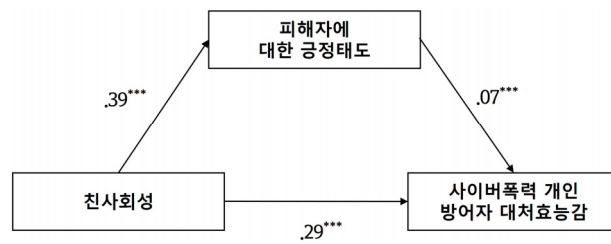
표 3.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 ($N = 2,055$)

변수	B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친사회성	.39	.02	22.16***	< .001	.36	.43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친사회성	.29	.02	17.03***	< .001	.26	.32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07	.01	6.61***	< .001	.05	.08

주1. LLCI = 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주2. ULCI = 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 $p < .001$.



주.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경로계수.
*** $p < .001$.

그림 4.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 긍정태도의 매개모형

표 4.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	B	SE	LLCI	ULCI
총효과	.39	.02	.35	.42
직접효과	.29	.02	.26	.32
간접효과	.07	.01	.05	.07

한 긍정태도는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친사회성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관련되는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효과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B = .16$, $SE = .01$, $t = 11.32$, $p < .001$)와 학급대처효능감($B = .42$, $SE = .02$, $t = 21.88$, $p < .001$)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나타났다. 성별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B = -.07$, $p = .004$), 학년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p = .815$).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학급대처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적 관련이 확인되었다($B = -.04$, $SE = .01$, $t = -4.11$, $p < .001$, 95% CI $[-.06, -.02]$). 이러한 결과는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정적 관계가 약화함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급대처효능감이 낮은 집단(-1 SD)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가 개인방

표 5.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수	B	SE	t	p	LLCI	ULCI
조절변수 모형(종속변수 :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상수	4.36	.06	76.94***	< .001	4.25	4.48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16	.01	11.32***	< .001	.13	.18
학급대처효능감	.42	.02	21.88***	< .001	.38	.45
성별	-.07	.02	-2.92**	.004	-.11	-.02
학년	.00	.01	.23	.815	-.02	.03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 학급대처효능감	-.04	.01	-4.11***	< .001	-.06	-.02
모형 설명력	$R^2 = .70$, $F = 17.53$, $p < .00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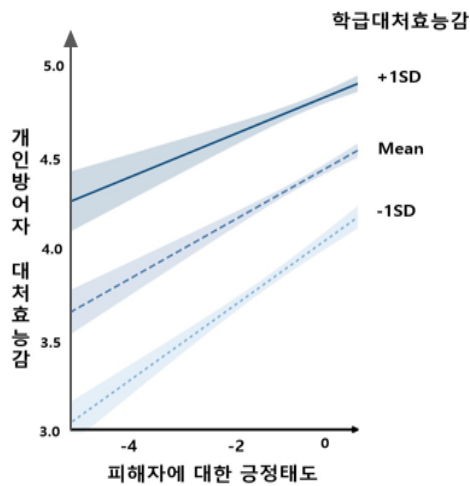


그림 5.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그래프(성별과 학년 통제)

어자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학급대처효능감이 높은 집단(+1 SD)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차원의 대응 신념이 약한 환경에서 개인의 태도적 자원이 효능감 형성에 더욱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4. 친사회성과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친사회성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에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B = .17$, $SE = .02$, $t = 10.91$, $p < .001$),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B = .12$, $SE = .01$, $t = 9.18$, $p < .001$)와 학급대처효능감($B = .36$, $SE = .02$, $t = 17.68$, $p < .001$) 역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학급대처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부적 관련이 나타났다($B = -.04$, $SE = .01$, $t = -3.61$, $p < .001$).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학급대처효능감이 낮은 수준(-1 SD)에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B = .04$, 95% CI [.03, .05]), 평균 수준($B = .03$, 95% CI [.02, .04])과 높은 수준(+1 SD: $B = .02$, 95% CI [.01, .03])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6은 학급대처효능감 수준(-1 SD, 평균, +1 SD)

표 6. 학급대처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한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변수	B	SE	t	p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친사회성 →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17	.02	10.91***	< .001
조절변수 모형(종속변수 :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상수	4.35	.06	78.48***	< .001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12	.01	9.18***	< .001
학급대처효능감 →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36	.02	17.68***	< .001
성별	-.06	.02	-2.68**	< .01
학년	.01	.01	.45	.66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 학급대처효능감 →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04	.01	-3.61***	< .001

** $p < .01$. *** $p < .001$.

표 7.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학급대처효능감 수준	W_raw	간접효과(Est)	LLCI	ULCI
-1 SD	3.47	.04	.03	.05
Mean	4.27	.03	.02	.04
+1 SD	5.08	.02	.01	.03

주1. W_raw 학급대처효능감(조절변수)의 실제 원자료 값(Mean ± SD).

주2. LLCI = lower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of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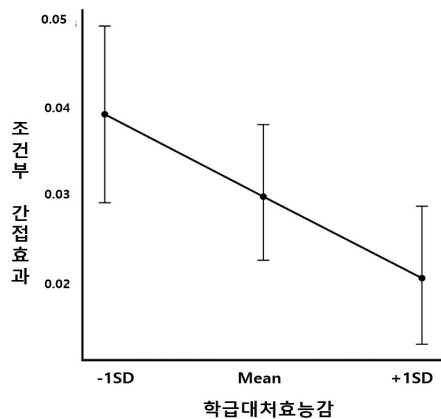


그림 6.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학급대처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친사회성과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와 학급대처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성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친사회성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이러한 태도 변인을 통해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매개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친사회성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게 유지되어 부분 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친사회성은 방어행동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권지웅, 박종효, 2020;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Osterman, & Kaukiainen, 1996). 이은영과 황혜원(2019), Chen, Fang, Wang, Chen과 Fan(2025)은 친사회성이 공감 능력과 방어자 역할 간

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함으로써, 친사회적 성향이 방어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인지·정서적 변인이 개입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도움행동 의도 역시 방어행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부경, 2022; 김은아, 이승연, 2011; 홍솔지, 최윤경, 2017). 한편 Calvete, Orue와 Kelley(2022)는 회복탄력성 기반 개입을 통해 온라인 도래 공격 피해자를 옹호하는 태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Song과 Oh(2018), DeSmet 등 (2016) 역시 방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위로, 신고, 개입 의도와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자 대처효능감이 단순한 규범 인식이 아니라, 정서적·태도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신념임을 보여준다.

둘째, 학급대처효능감은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부적 관련을 나타낸 점은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련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 전체가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각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태도에만 의존하기보다 집단적 대응 신념에 기반하여 행동을 판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내가 도와야 한다”라는 개인적 판단보다 “우리 반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집단적 확신이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Bandura(2001)의 집단효능감 이론과도 부합한다. 집단이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공유된 신념은 개인의 행동 선택과 지속성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Festl, Scharkow와 Quandt(2015) 역시 집단의 대응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은 자신의 태도와 무관하게 집단 규범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학급 규범과 집단적 신념이 방어행동과 관련되는 맥락 요인으로 작용함이 제시된 바 있다(김은아, 이승연, 2011; 홍솔지, 최윤경, 2017; Barlinska, Szuster, & Winiewski,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음의 상호작용 효과는 학급대처효능감이 개인 수준의 태도와 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완충하는 맥락적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학급대처효능감은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매개로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간접 경로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학급대처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친사회적 성향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거쳐 방어자 대처효능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학급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박선녀, 2022). Thornberg, Wanstrom과 Hymel의 연구(2019)에서도 학급 규범과 분위기와 같은 맥락 요인이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실질적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갖는 조절된 매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대응 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개인 요인과 학급 맥락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사이버폭력 상황에서의 방어 행동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제언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예방 정책은 가해 행동 억제 중심 접근에서 방어자 역량 강화 중심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방어자 대처효능감은 단순한 규범 인식이 아니라 친사회성과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같은 심리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행동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기반의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공감,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같은 사회정서 역량은 방어자 대처효능감의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공감 능

력과 도덕적 판단이 형성되는 발달 단계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급대처효능감을 예방 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급은 사이버폭력 대응에서 하나의 심리적 보호 체계로 기능할 수 있으며, 집단적 대응 신념은 개인의 방어자 대처효능감 형성 과정에 중요한 맥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급 공동 대응 프로그램, 또래 리더를 중심으로 한 방어자 역할 훈련, 학급 중심 규범 형성 활동 등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학급·학교 수준을 연계하는 다층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학급 회의, 또래 중재, 협동 프로젝트, 사이버폭력 예방 공동 선언문 작성과 같은 학급 중심 활동은 사이버폭력을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 실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교사 연수 및 학교 지원 체계에서 집단효능감 형성을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급대처효능감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중재, 또래 관계 조정, 집단 규범 형성 전략, 학급 대화 촉진 기술을 포함한 실천 중심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모형 검증 연구로, 도구 개발이나 종단·실험 설계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예방 교육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아니라, 주요 변인 간의 관계 구조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 보고식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및 공통 방법편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향” 등의 표현은 통계적 관련성과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표현이며, 엄밀한 인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 및 실험적 접근을 통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재단의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해당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 학교와 학생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무작위 선정방식에 의한 자료를 통해 연구결과가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학급대처효능감은 개인이 지각한 집단적 대응 역량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집단 수준 효과를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집단주의적 문화 맥락과 학급 중심 상호작용 구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급 단위 집계 자료를 활용한 다층모형 분석을 적용하여 집단 수준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경계 수준으로, 측정 오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척도 개선 및 잠재변수 모형을 활용하여 측정 오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이 초등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연구로 확장하여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 보고식 설문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및 공통방법편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포레 지명, 교사 및 부모 보고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과 집단효능감 관점에서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을 개인 요인과 학급 맥락 요인의 상호작용 구조로 설명하였다. 특히 친사회성,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학급대처효능감이 상호작용을 하는 조절된 매개 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소라, 조해련, 김신정 (2020). 초등학생의 공감 정도와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한국아동간호학회*, 26(2), 164-172. <https://doi.org/10.4094/chnr.2020.26.2.164>
- 경선정, 신희영 (2023). 집단 규준과 지각된 규준이 포레 괴롭힘의 방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3), 31-54. <https://doi.org/10.35574/KJDP.2023.9.36.3.31>
- 교육부. (2025).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권지용, 박종호 (2020). 초등학생의 공감, 친사회성 및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포레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성차. *인간발달연구*, 27(3), 1-21. <http://doi.org/10.15284/kjhd.2020.27.3.1>
- 김부경 (2022). 사이버불링 참여 역할 잠재계층유형과 예측요인. *상담심리교육복지*, 9(6), 29-43. <https://doi.org/10.20496/cpew.2022.9.6.29>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포레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은주 (2016).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학교폭력 및 사이버불링 피해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3(23), 87-115. <http://doi.org/10.21509/KJYS.2016.07.23.7.87>
- 김학주 (2021).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59, 43-68. <https://doi.org/10.17924/solc.2021.59.43>
- 노언경 (2024). 학교급 변화에 따른 사이버폭력 유형 특성과 종단적 전이 양상 및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31(4), 365-388. <http://doi.org/10.21509/KJYS.2024.04.31.4.365>
- 노희주, 조윤오 (2025).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9(1), 63-94.
- 문용린, 최인수, 곽윤정, 이현주, 이화선, 이미나, 박형빈, 석수경 (2010).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박서연, 서미정 (2024).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서 개인의 부정적 신념과 가해동조행동 및 방관행동 간의 관계: 집단의 부정적 신념과 집단의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5(3), 395-420. <https://doi.org/10.15753/aje.2024.9.25.3.395>
- 박선녀 (2022).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포레괴롭힘 방어행동 및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4-305.
- 박종호, 최은영, 임재연, 이선숙, 구영룡, 권지용 (2021). 사이버폭력 검사도구의 타당화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푸른나무재단.
- 박철규, 김하균 (2021). 사이버불링 특성이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집*, 7(5), 127-136.
- 서미정 (2025).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도덕적 이탈과 주변인 행동간의 관계: 포레효능감의 조절효과. *놀이치료연구*, 28(3), 397-411. <https://doi.org/10.17641/KAPT.28.3.6>
- 송경의, 손연경, 이승연 (2018). 중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 신념, 인지적 재평가, 포레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 489-509. <https://doi.org/10.16983/kjsp.2018.15.3.489>
- 송지연 (2022).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이탈, 성격적 신념이 방어 행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9(11), 705-724. <https://doi.org/10.21509/KJYS.2022.11.29.11.705>
- 오승화 (2018).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개인, 또래, 교사, 학급 변인이 괴롭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9(49), 1-26.
- 오인수, 임영은, 김서정 (2019).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괴롭힘 주변인의 방어 및 동조 행동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4), 943-960.
- 이은영, 황혜원 (2019). 아동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또래 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아이젠버그의 친사회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204-248. <https://doi.org/10.15709/hswr.2019.39.4.204>
- 임승철, 박주희 (2020).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급분위기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1(2), 41-55.
- 정여주, 김지영, 김현지, 팽현지, 윤나래, 임자양, 최민아 (2025). 사이버폭력 정의 및 유형화 고찰과 최신 사례의 분류 적용 분석: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인문사회과학연구*, 7(5), 619-638. <https://doi.org/10.62783/SHSS.7.5.40>
- 정여주, 김한별, 전아영 (2016).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24(3), 95-118.
- 푸른나무재단. (2023). 친사회적 역량 기반 푸른코끼리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검증: 실험설계 연구모형 적용 최종보고서. 서울: 건국대학교, 푸른나무재단.
- 홍솔지, 최윤경 (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39-60.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https://doi.org/10.1037/0003-066X.44.9.117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1>
- Barlinska, J., Szuster, A., & Winiewski, M. (2018).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Role of affective versus cognitive empathy in increasing prosocial cyberbystander behavior. *Frontiers in Psychology*, 9, 799. <https://doi.org/10.3389/fpsyg.2018.00799>
- Batson, C. D. (2012). A history of prosocial behavior research. In A. W. Kruglanski & W. Stroebe (Eds.), *Handbook of the history of social psychology* (pp. 243-264). New York: Psychology Press.
- Bussey, K., Luo, A., Fitzpatrick, S., & Allison, K. (2020). Defending victims of cyberbullying: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8, 1-12. <https://doi.org/10.1016/j.jsp.2019.11.006>
- Calvete, E., Orue, I., & Kelley, B. J. (2022). A growth mindset intervention to promote resilience against online peer aggression in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5, Article 107373. <https://doi.org/10.1016/j.chb.2022.107373>
- Chen, H., Chen, C., Li, Y., & Fan, C. (202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efending behavior scale of cyberbullying for adolescents. *Behavioral Sciences*, 14(10), 967. <https://doi.org/10.3390/bs14100967>
- Chen, H., Fang, Y., Wang, L., Chen, Y., & Fan, C.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ding self-efficacy and defending behavior in cyberbullying: A moderated mediation model. *BMC Psychology*, 13(1), Article 426. <https://doi.org/10.1186/s40359-025-02758-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rr, S., & Morrow, M. T. (2020). Effects of a growth mindset of personality on emerging adults' defender self-efficacy, moral disengagement, and perceived peer defend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5(3-4), 542-570. <https://doi.org/10.1177/0886260519889922>
- DeSmet, A., Bastiaensens, S., Van Cleemput, K., Poels, K., Vandebosch, H., Cardon, G., & De Bourdeaudhuij, I. (2016). Deciding whether to look after them, to like it, or leave it: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redi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98-415. <https://doi.org/10.1016/j.chb.2015.12.051>
- Doumas, D. M., & Midgett, A.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witnessing cyberbullying and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xie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7(2), 128-140. <https://doi.org/10.1002/pits.22467>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7).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646-718). Wiley.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Festl, R., Scharnow, M., & Quandt, T. (2015). The individual or the group: A multilevel analysis of cyberbullying

- in school class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4), 535-556. <https://doi.org/10.1111/hcre.12056>
- Gini, G., Pozzoli, T., Borghi, F., & Franzoni, L. (2008). The role of bystanders in students' perception of bullying and sense of safe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17-638. <https://doi.org/10.1016/j.jsp.2008.02.001>
-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4), 512-527. <https://doi.org/10.1111/1467-9507.00178>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https://doi.org/10.1080/01639620701457816>
- Hinduja, S., & Patchin, J. W. (2015).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ponding to cyberbullying*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induja, S., & Patchin, J. W. (2019). *Cyberbullying facts*. Boca Raton, FL: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 Hu, Y., Zhang, T., Shi, H.-F., & Fan, C.-Y. (2023). Empathy and bystander helping behavior i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internet moral judgment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ternet self-efficacy. *Frontiers in Psychology*, 14, Article 1196571. <https://doi.org/10.3389/fpsyg.2023.1196571>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oehler, C., & Weber, M. (2018). Do I really need to help?!" Perceived severity of cyberbullying, victim blaming, and bystanders' willingness to help the victim.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12(4), Article 4. <https://doi.org/10.5817/CP2018-4-4>
- Law, D. M., Shapka, J. D., Hymel, S., Olson, B. F., & Waterhouse, T. (2012). The changing face of bullying: An empirical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bullying and internet bullying and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1), 226-232. <https://doi.org/10.1016/j.chb.2011.09.004>
- Macaulay, P. J. R., Betts, L. R., Stiller, J., & Kellezi, B. (2022). Predictors of bystander responses to cyberbullying: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3(5), 1679-1695. <https://doi.org/10.1177/15248380211030259>
- Oh, I., & Hazler, R. J. (2009). Contributions of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to bystanders' reactions to school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3), 291-310. <https://doi.org/10.1177/0143034309106499>
- Pabian, S., Vandebosch, H., Poels, K., Van Cleemput, K., & Bastiaensens, S. (2016). Exposure to cyberbullying as a bystander: An investigation into the desensitization effect among early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2, 480-487. <https://doi.org/10.1016/j.chb.2016.04.022>
- Panumaporn, J., Hongsangunsri, S., Atsariyasing, W., & Kiatrungrit, K. (2020).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and related factors. *General Psychiatry*, 33(3), e100187. <https://doi.org/10.1136/gpsych-2019-100187>
- Pardo-Gonzalez, E., & Souza, S. B. (2022). What do parents think about cyberbullying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Revista de Educacao*, 397, 97-124. <https://doi.org/10.4438/1988-592X-RE-2022-397-541>
- Polizzi, G., & Harrison, T. (2022). Wisdom in the digital age: A conceptu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cultivating cyber-wisdom.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4(1), 16.
- Poyhonen, V., Juvonen, J., & Salmivalli, C. (2010). What does it take to stand up for the victim of bullying the interplay between personal and social factors. *Merrill-Palmer Quarterly*, 56(2), 143-163.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https://doi.org/10.1002/\(SICI\)1098-2337\(1996\)22:1<1::AID-AB1>3.0.CO;2-T](https://doi.org/10.1002/(SICI)1098-2337(1996)22:1<1::AID-AB1>3.0.CO;2-T)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7.01846.x>
- Sobol, M., Przepiorka, A., & Błachnio, A. (2025).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fending behavior of adolescent cyberbystan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62, Article 108463. <https://doi.org/10.1016/j.chb.2024.108463>
- Song, J., & Oh, I. (2018). Factors influencing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in cyberbullying situa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8, 273-282. <https://doi.org/10.1016/j.chb.2017.10.008>
- Thornberg, R., Wanstrom, L., Hong, J. S., & Espelage, D. L. (2017). Classroom relationship qualities and social-cognitive correlates of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in school bullying in Sweden: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49-62. <https://doi.org/10.1016/j.jsp.2017.03.002>
- Thornberg, R., Wanstrom, L., & Hymel, S. (2019).

- Individual and classroom social-cognitive processes in bullying: A short-term longitudinal multilevel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0, Article 1752. <https://doi.org/10.3389/fpsyg.2019.01752>
- Wang, J., Nansel, T. R., & Iannotti, R. J. (2011).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4), 415-417.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0.07.012>
- Zhao, Y., Chu, X., & Rong, K. (2023). Cyberbullying experience and bystander behavior in cyberbullying incidents: The serial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incident severity and empath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8, Article 107484. <https://doi.org/10.1016/j.chb.2022.107484>